

일본의 전환금융 지원정책과 미즈호 금융그룹의 적용사례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재경 (jaekyeong23@kdb.co.kr)

- ◆ 일본 정부는 '21.5월 '전환금융 기본지침'과 후속 지침을 통해 전환금융의 기본조건을 수립하였고, 금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판단
- ◆ 미즈호 금융그룹은 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전환금융 지원
- ◆ 일본은 별도의 택소노미 없이 기업이 제출한 전환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금융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구축

□ 일본 정부는 '21.5월 공표한 '전환금융* 기본지침' 외 후속 지침을 통해 전환금융의 기본조건을 수립하였고, 금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전환금융 제공

* 탈탄소화 사회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

○ 일본은 '전환금융 기본지침'에 의거, ICMA 핸드북*에서 제시한 전환금융의 4대 핵심요소**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으로 인정

* 국제자본시장협회(ICMA)에서 '20.9월 채권 발행기관이 기후전환전략 이행을 목적으로 자금조달시 실행방안과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준비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마련한 핸드북

** ①기후전환 전략 및 거버넌스, ②비즈니스 모델의 환경적 중요성, ③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전환 전략, ④이행 투명성

- 개별 금융기관은 전환금융 기본지침과 후속 지침에 따라 전환금융 적격성을 1차적으로 판단하며, 최종으로 일본 정부에서 적격 여부를 확정

【 일본 전환금융 정책 동향 】

구분	주요 내용
전환금융 기본지침 (21.5월~)	▶ 전환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탄소섹터에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청·경제산업성·환경성이 공동 공표 ▶ ICMA 핸드북과 자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전환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전환금융 사후관리지침 (23.6월)	▶ 자금지원 이후 기업의 전환전략의 이행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자금공급자의 사후관리 기본방향을 정리 ▶ 전환금융에 대한 전략·목표·대상사업의 진척 상황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
GX추진전략 (23.7월)	▶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방안^주, '33년까지 20조 엔 규모 GX경제전환채권 발행 계획, 탄소가격제 도입('26년 도입, '33년 유상할당) 등을 제시
전환채권 프레임워크 (23.11월)	▶ GX경제전환채권 발행을 위한 전환채권 프레임워크 개발 ▶ 조달 재원은 에너지 효율성, 재생에너지, 저탄소·탈탄소 에너지, 청정교통, 순환경제,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등에 활용될 방침

주 : 에너지 효율 대응(에너지 절약 보조금 지원, 단열창 개보수 등), 재생에너지 확대, 원자력 활용 확대, 수소·암모니아 연료 도입, 탄소재활용 산업의 실용화 및 저비용화를 위한 지원책 추진 등

자료 : 일본경제산업성, 우리금융연구소

□ 일본의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인 미즈호 금융그룹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전환금융 지원

- 미즈호 금융그룹은 대상 기업의 전환리스크 대응 의지 및 전략 수립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, 미이행시 금융거래를 중단
 - '22.12월에는 자체적인 지원체계인 '전환지원 프레임워크'를 개발하였고, '23.12월에는 그린 프로젝트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

【 미즈호 금융그룹 전환지원 프레임워크 】

전환전략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인 가능한 고객에 대한 지원		그린 프로젝트로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지원(재생에너지 등)	
항목	주요 내용	항목	주요 내용
① 전환전략과 필요요소	▶ 전환전략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할 것	① 자금 사용처	▶ 자금이 그린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
② 지배구조	▶ 전환전략 및 목표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배구조 보유	②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절차	▶ 환경목표 및 프로젝트 적격성(eligibility) 평가 프로세스 보유
③ 과학기반 목표	▶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목표설정	③ 자금사용관리	▶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
④ 공시여부	▶ 전략과 목표의 투명한 정보공개	④ 보고	▶ 자금 사용처 및 배분의 투명성 확보
⑤ 대상 탈탄소 기술의 전망	▶ 탈탄소 기술 도입 및 개발에 대한 전망 보유	⑤ 전환리스크 관리정책	▶ 전환리스크 대응 및 사업구조 변혁 의지 여부

자료 : Mizuho Financial Group(2023), "Sustainability Initiatives"

- 대표 사례로 '23.11.30일 가와사키 중공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0억 엔 규모의 전환채권(만기5년)을 구조화금융으로 발행
 -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환금융 적격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며, 동 사례를 전환금융 기본지침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로 선정

【 가와사키 중공업의 전환의 4대 요소 충족여부 】

구분	내용
① 기후전략 및 거버넌스	▶ (기후전략) '30년까지 일본내 그룹사의 Scope 1,2 탄소중립 실현, '50년까지 그룹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 - '50년까지 그룹 전체의 Scope 3 탄소중립 또한 목표로 하며 '40년까지 모든 사업 영역에서 탄소제로 솔루션 라인업을 완비할 계획 ▶ (거버넌스)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위원회 설립
② 비즈니스 모델의 환경적 중요성	▶ '20년 'Group Vision 2030' 대응 차원에서 중대 사안을 재검토하고 다음의 세 가지 중점 영역으로 재정의함 :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①원격 연결 사회, ②근미래 모빌리티, ③에너지 및 환경 솔루션
③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전환 전략	▶ 'Group Vision 2030'의 목표('30년까지 일본 내 그룹사 넷제로)를 달성하기 위해, 2021 회계연도 기준 그룹 전체(해외 포함)의 배출량을 연평균 7.6% 감축해야 하며, 이는 1.5℃ 시나리오 기준의 과학기반 목표 인증 수준에 부합함
④ 이행 투명성	▶ '20~'30년 중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총 3,5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, 이 중 500억 엔은 100MW 규모 수소 발전사업에 투입 예정

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(2025)

□ 일본은 별도의 탄소노미 없이 기업이 제출한 전환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전환금융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

- 탄소 고배출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은 탄소노미 도입보다는 기업이 제시한 전환 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금융 지원
 - 탄소노미 적용시 열거된 활동만이 금융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(활동기준), 그 외 배제기준*, 보호기준** 등도 5년 내에 충족해야 하므로,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금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 - * 경제활동이 특정 환경 목표에 기여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(Do No Significant Harm Rule)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
 - ** 환경목표 달성 이외에도 인권, 노동과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
- 이러한 일본의 전환금융 지원체계는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전환금융 지원이 가능한 점이 장점
 - 그러나 기업의 전환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이 산업의 특수성이나 기술개발 동향에 크게 좌우되어,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그린워싱*의 위험성 상존
 - * 친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등을 위해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